



## 부자 학교, 가난한 학교

박 상 미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렇다 할 안정적 재원이 없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어떻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이련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샅바느질, 행상, 폐품 모아 팔기 등으로 상당액을 모은 분들이 못 배운 한을 늦게나마 풀기 위해 전 재산을 학교에 기증했다는 이야기들은 분명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 이렇듯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앞서 말한 “미담”들을 아름답고 대단하다고만 생각하고 말 수 없는 처지이다. 끊임없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과연 그 샅바느질 할머니 — 이러한 분들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께서 바라시는 만큼 우리는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있을까?”이며, 나는 이에 선뜻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슴 아플 만큼 힘들게 모아주신 기부금을 그 분들의 성의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그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 몫을 하셨다는 만족감으로 행복해 하실 터이니

아마도 그분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일 것이고, 그 뜻은 고귀한 것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최근에 간간이 나타나는 이러한 할머니들의 기부 행위를 우리 사회 내에서 그 분들이 당해온 성적, 계급적 차별을 뒤엎는 쾌거라고까지 평가한다. 소극적이며, 가족밖에 모르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를 깨끗이 불식시키는 행위이며, 사회가 규정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숨에 거부하는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상징적 중요성과 도덕적 고귀함은 가지지만, 이것이 현재 사학들이 처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대학 교육은 엄청난 양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대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두 곳의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과 조교수 생활을 한 후 귀국하였는데, 10년이 넘게 세 군데의 미국 대학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대학 현실과는 매우 다른 점들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물론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

가 가지는 근본적인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자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대학 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문제들을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사회의 경험들은 나름의 시사점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대학과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대학은 모두 사립이며, 대학 재정의 풍요로움에 있어 미국 대학들 중 수위를 다투는 곳들이다. 반면, 후에 조교수로 봉직한 대학은 뉴욕 시립대학의 일원으로 주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시립대학이지만 대학 교육 예산은 주 예산에서 집행된다.—그해 그해 주의회의 예산안 결정에 따라 학교의 운영이 좌우되고 뼈뺀 재정을 꾸려가야 하는 곳이었다.

'80년대 초반과 중반, 5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학 정원 확대와 졸업 정원제 시행으로, 학생 수는 배로 늘어났지만 대학의 기반 시설이나 교수진의 규모는 거의 그대로였던 열악한 환경에서 학부 교육을 마치고 유학을 간 필자의 눈에는 나의 새 학교는 정말 별천지였다. 한마디로, 학생의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못해 줄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지금도 나는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던 행운에 감사하고 있지만, 당시의 나는 심지어 이런 풍요 속에서 과연—나의 전공이 속한—사회과학이 가능한가를 의심할 정도였다. 사회과학이란 인간과 사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해를 깊게 해 가는 학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학교에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가품이었던 개인용 컴퓨터들이 캠퍼스 곳곳에 산재해 있어 24시간 학생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었고, 말 그대로 없는 책이 없었던 중앙 도서관 외에도 학교의 단과대학마다—또는

과나 기숙사별로— 따로 있는 도서관들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책의 경우 여러 권을 소장하여 책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핑계는 성립되기 힘들게 되어 있었다. 또한, 학부생들의 수업은 매 과목별로 한 주당 세 시간 중 두 시간은 교수의 강의로, 나머지 한 시간은 15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 지도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말하자면 학교가 과외 교사를 붙여 주어 학부생들 공부를 시키는 셈이었는데, 이러한 형식의 수업을 통하여 학부생들은 강의 형식의 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부분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충할 수 있었고,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앞으로의 교수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연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재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학위를 받은 후, 박사후 연구원으로 또 다른 사립학교로 옮겨갔을 때, 이미 풍요에 익숙해진 나는 그리 놀라워 하지는 않았으나 사정은 비숫했다. 앞의 학교와는 달리 조용한 대학 도시에 자리잡은 이 학교에서는 귀족적인 분위기마저 느낄 수 있었다.

이 두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만큼의 부를 가지게 되었는가는 그리 간단히 설명될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백인들이 미주 대륙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관계, 이후 영국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들, 흑백 문제,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이 연루된 전쟁 등 미국 사회 안과 밖의 상황들 속에서 이들 학교들도 반드시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을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에 학생들은 학교의 기금이 당시까지도 인종 차별적인 아파트이드 정책을 가지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에 투자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

이제 어느 대학의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받아 그 대학의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얼마나 내실 있는 교육을 받아, 얼마만큼의 실력을 쌓았는가가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실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도 이 학교의 재정이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더 풍부해지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이다. 그 규모는, 아  
직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최근의 졸업생이 내  
는 일년에 25달러부터, 대기업이나 큰 자산가가 내  
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필자가 속했던 두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 투자 회  
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수한 경영대학원  
출신인 자금 운용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기금의 끊임없는 유  
입과 그 합리적 운용은 이들 학교가 경제적인 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교육 환경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기금을 출연한 개인과 기업은 학교에 특별히 마  
련된 부서에서 그에 합당한 예우와 관리를 하는데,  
특별히 많은 액수를 낸 집안의 후손은 입학 사정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기  
도 한다. 이른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이런 경로  
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레거시(legacy: 유산)”라  
불렸으며, 다른 학생들이 이들이 누구인지 아는 경

우도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정황으로 짐작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공개적으로 정확히 누가 레거시인지  
가 논의되는 경우는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들 레거시 학생들도 일정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입학이 허가된다는 것이며, 입학 후에 다  
른 학생들과 똑같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해  
야 학적을 유지하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  
게 할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레거시로 힘에 부치  
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  
지 않는 실패의 기록만을 가지게 해 줄 뿐이다. 또  
한, 기부금의 출연과 입학 허가는 물건을 사듯이 맞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에 걸쳐 학교를 위해  
큰 도움을 주어진 집안의 학생을 대학 당국이 별도  
의 기준을 적용해 전형하는 것이다.

교육이 비교적 평등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작용  
해 온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극심한 대입 경쟁을  
체험한 필자는 물론 레거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와 일류 대학 입학은 교  
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그 부라  
는 것도 자신의 노력보다는 선대의 성공의 결과이  
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박사 후 연구원으  
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난 한 한국계 여학생은 필  
자가 레거시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

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 학생은 자신의 부모가 새로운 이민자로서 아직 미국 사회에 경제적 기반을 가지지 못해, 당시 시애틀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며 하루 열두 시간씩 힘든 다림질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우수한 사립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입학 지원자의 등록금 부담 능력 여부를 불문한 입학사정 정책 (need-blind admissions policy)"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의 경제적 부담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일단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 후,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얻도록 해주어 가난한 학생도 실력이 있으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이 제도는 학교 기금의 액수가 미국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한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미국 사회에서, 서민의 자녀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통로는 비록 좁기는 하지만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계속 접해 가면서 필자는 만일 대학 기금의 운용이 투명하고 건설하며, 레거시로 들어온 학생에게도 엄격한 학사관리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소수의 기금제공자 가족이 입학함으로써 다수의 학생이 훨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공부를 하기 힘든 학생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도 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일단 기부금을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만 쓴다는 데 대학과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 재단들의 회계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누구나 졸업한다는 분위기를 쇠신하여 정말 성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부금과 입학 허가와의 관계도 그 둘을 맞바꾸는 형식의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학교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우대적 고려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충족되더라도 대학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라는 면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제 어느 대학의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받아 그 대학의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얼마나 내실 있는 교육을 받아, 얼마만큼의 실력을 쌓았는가가 훨씬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실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박상미**

#### 박상미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Harvard University에서 인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시립 퀸즈대 인류학과 조교수, 다트머스대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문화인류학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1980·90년대 한국 여성에 있어 집안 일의 의미와 정체성」(김광역과 공저), 「전통, 권력, 그리고 맛: 인사동 거리의 음식문화를 통해서 본 지역 정체성의 형성」, 「McDonald's in Seoul: Food, identity, and Nationalism in Korea」 외 다수가 있다.

#### 社告

"기획 논단 / 21세기 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 쉬고 113호에서 연재됩니다.